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대인관계 스트레스 비교

최 정\* · 권 유 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위험요소 차단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력 비율을 높여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우리나라의 입원 서비스 모형이다(Kim, Kim, Park, Jeong, & Lee, 2017). 이 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적정 간호인력을 투입하여 사설간병인을 고용하려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문제와 안전문제 등 간호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고자(Gil & Choi, 2012) 2006년 처음 시작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다(Kim et al., 2017). 2015년 6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는 보호자나 간병인의 상주, 잦은 방문객의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고(Kim et al., 2017) 2018년 현재 전국 461개 기관, 총 804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이 여러 측면에서 보고되고 있으며(Kim et al., 2017)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환자측면에서 조사된 바로는, 해당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간호서비스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병원재이용 의사도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Jung & Sung,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간호사의 친화적, 정보제공형 의사소통 유형에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간호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재이용 의사가 높아졌다(Kim, Kim, & Lee, 2017). 두 번째로 간호사 측면에서의 장점도 보고되고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의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업무수행 및 간호업무지식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근무환경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근무환경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Jung, You, & Lee,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건강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간의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을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졌다(Kim &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kyr1016@ansan.ac.kr)

• Received: 3 November 2018 • Revised: 22 November 2018 • Accepted: 3 December 2018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weon, Yoorim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155, Ansandaehak-ro, Sangnok-Gu, Ansan-si, Gyeonggi-do, 15328, Republic of Korea

Tel: 82-31-400-7130 Fax: 82-31-400-7107 E-mail: kyr1016@ansan.ac.kr

Kang, 2018). 또한 직무스트레스나 감정노동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 Han, 2017), 이에 따른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ee & Chang, 2016). 이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서적 요인에 대해 비교한 논문이 많았으며 연구결과들 간에 차이가 있어 반복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간호사의 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우울, 감정노동, 소진과 같은 요인은 그 정도에 따라 신체적 건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병동 간 신체적 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두 병동 간호사의 건강 현황을 다각적 측면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건강과 건강증진행위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ang & Shim, 2018) 인력관리 차원에서도 간호사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문제로는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Yun, Ham, Cho, & Lim, 2012), 수면의 질 저하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위협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Lee, 2016) 간호사의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는 업무스트레스, 소진 등으로 인해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피로가 누적되면 근무 태만이나 실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환자안전에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소진, 이직률이 높아져 노동시간의 손실과 비용 손실이 많아지게 되므로(Jang, 2013), 간호사의 피로와 수면의 질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은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기본원칙으로 발전한 것이기에 환자나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간호사를 위한 의사소통교육은 실제 임상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적용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hin, Lee, Moon, Jung, & Lee, 2018). 이러한 현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경우 기존의 간병문화에 익숙한 일부 환자, 보호자의 무리한 간호요구 등으로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m,

2015).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기대와 간호사의 수행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Yoon, Lim, & Kang, 2017) 간호사 및 환자 간 의사소통 요구도 차이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간호사들은 환자가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건강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차이를 비교하여 간호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300-500명상 규모의 종합병원 총 6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현 부서에서 통상 적응기간으로 고려하는 3개월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하였다. 근무부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i^2$  test에서 중간효과크기 .30,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191명이었다. 조사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14명, 일반병동 간호사 106명이 참여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1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항목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위, 총 임상경력, 현 부서 임상경력, 월 평균 밤번 근무 일수, 월급여, 주당근무시간, 담당환자수를 포함하였다.

#### 2) 피로

피로는 Jang (2013)이 개발한 간호사의 피로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고갈성 피로 16문항, 긴장성 피로 3문항, 누적성 피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피로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5,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7 이었다.

#### 3)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Yi, Shin과 Shin (200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주간기능장애, 수면 후 회복,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수면만족, 수면유지 어려움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0점에

서 '거의 항상 그렇다' 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0,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5 이었다.

#### 4)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Kim (2013)이 사용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사(선배), 부하(후배), 동료, 환자/보호자 관계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0,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2 이었다.

### 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6개 기관에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종합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사전 구두 승인을 받은 후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참여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간호부서를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연구 대상자 참여기준에 대해 재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설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였으나, 232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2.8%), 이 중 응답이 미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총 220부를 연구의 최종자료로 이용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A대학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2018-08-009). 연구대상 기관의 간호부로부터 설문조사 승인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연구설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부호화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연구참여는 자발적이며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비밀 유지를 위해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용 봉투에 응답자가 직접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차이 검정은 t-test,  $\chi^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변수는 ANCOVA를 활용하여 통제된 후 집단 간 주요변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114명, 일반병동 간호사는 106명이었다. 대상자 성별은 여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110명(96.5%), 일반병동 104명(98.1%)으로 대부분이었다. 평균연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경우 28.7세, 일반병동 간호사는 28.4세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비율에서도 30세 미만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81명(71.1%), 일반병동은 70명(6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 인원수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89명(78.1%), 일반병동 85명(80.2%)으로 두 집단 모두 미혼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문학사 소지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는 45명(39.5%), 일반병동에서는 24명(22.6%)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전문학사 소지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93명(81.6%), 일반병동 89명(8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므로 나타났다. 총 임상경력 평균 연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5.5년, 일반병동 5.2년이었으며, 현재 부서 근무 연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2.0년, 일반병동 2.3년으로 두 변수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월평균 밤번 근무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5.23일, 일반병동 5.89일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으나 일반병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여는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62명(54.4%), 일반병동 60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62명(54.4%), 일반병동 62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담당환자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경우 평균 11.90명, 일반병동 평균 18.06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상자의 피로 정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73.42점, 일반병동 75.43점으로 일반병동이 다소 피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역별로 고갈성 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48.32점, 일반병동 49.28점, 긴장성 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9.96점, 일반병동 10.42점, 누적성 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5.14점, 일반병동 15.73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반병동의 피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35.08점, 일반병동 36.93점으로 일반병동이 다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역별로 두 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하면 주간기능장애는 각각 9.44점, 10.11점, 수면 후 회복은 각각 7.99점, 8.32점, 잠들기 어려움은 각각 4.64점, 4.83점, 일어나기 어려움은 각각

4.58점, 4.82점, 수면만족은 각각 5.81점, 6.11점, 수면유지 어려움은 각각 2.62점, 2.74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46.09점, 일반병동 47.52점으로 일반병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각 하위영역별로 두 집단 간 점수를 비교하면 상사(선배)와의 관계는 각각 10.60점, 11.60점으로 일반병동의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24$ ,

$p=.041$ ). 부하(후배)와의 관계는 각각 10.91점, 11.74점, 동료와의 관계는 10.21점, 10.47점으로 일반병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보호자와의 관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4.37점, 일반병동 13.72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 3. 대상자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0)

Characteristics	Category	CW <sup>†</sup>	GW <sup>†</sup>	t or $\chi^2$	p
		(n=114) n(%) or M( $\pm$ SD)	(n=106) n(%) or M( $\pm$ SD)		
Gender <sup>‡</sup>	Female	110(96.5)	104(98.1)	0.55	.684
	Male	4( 3.5)	2( 1.9)		
Age (yrs)		28.7( $\pm$ 6.1)	28.4( $\pm$ 5.7)	0.17	.678
	<30	81(71.1)	70(66.0)	1.25	.535
	30 $\leq$ ~<40	25(21.9)	30(28.3)		
	$\geq$ 40	8( 7.0)	6( 5.7)		
Marital status	Single	89(78.1)	85(80.2)	0.15	.699
	Married	25(21.9)	21(19.8)		
Level of education	Associate's degree	45(39.5)	24(22.6)	7.28	.026
	Bachelor degree	63(55.3)	74(69.8)		
	Master degree	6( 5.2)	8( 7.5)		
Position <sup>‡</sup>	Staff nurse	93(81.6)	89(84.0)	1.35	.538
	Charge nurse	14(12.3)	14(13.2)		
	Head nurse	7( 6.1)	3( 2.8)		
Total clinical career experience (yrs)		5.5( $\pm$ 6.1)	5.2( $\pm$ 5.3)	0.16	.687
Work experience in current unit (yrs)		2.0( $\pm$ 2.6)	2.3( $\pm$ 2.9)	0.59	.440
Number of night shifts per month (day)		5.23( $\pm$ 2.85)	5.89( $\pm$ 2.32)	3.51	.062
Monthly income (10,000 won)	$\leq$ 4	25(21.9)	16(15.1)	5.37	.068
	5~7	78(68.4)	69(65.1)		
	$\geq$ 8	11( 9.6)	21(19.8)		
Working hours per week	200 $\leq$ ~<250	16(14.0)	15(14.2)	0.15	.929
	250 $\leq$ ~<300	62(54.4)	60(56.6)		
	$\geq$ 300	36(31.6)	31(29.2)		
Number of patients per nurse	<40	12(10.5)	7( 6.6)	1.77	.621
	40 $\leq$ ~<45	62(54.4)	62(58.8)		
	45 $\leq$ ~<50	27(23.7)	28(26.4)		
	$\geq$ 50	13(11.4)	9( 8.5)		
		11.90( $\pm$ 4.48)	18.06( $\pm$ 3.75)	29.74	<.001

<sup>†</sup> CW=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sup>‡</sup> GW=General ward, <sup>‡</sup> Fisher's exact test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피로와 수면의 질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53, p<.001$ ), 피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47, p<.001$ ), 수면의 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38, p<.001$ )를 나타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와 수면의 질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46, p<.001$ ), 피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35, p<.001$ ), 수면의 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관계는 양적 상관관계( $r=.27, p=.006$ )를 나타냈다(Table 3).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먼저 피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병동 간호사는 73.42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75.43점으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Lee (2016)의 연구에

Table 2. Comparison of Fatigue, Sleep Qual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N=220)

Variables	Subscale	CW*	GW*	t(p)
		(n=114)	(n=106)	
		Mean(±SD)	Mean(±SD)	
Total fatigue		73.42(±15.27)	75.43(±14.91)	0.98(.324)
	Depletive fatigue	48.32(±10.62)	49.28(±10.70)	0.45(.502)
	Tensional fatigue	9.96(± 2.62)	10.42(± 2.31)	1.97(.162)
	Accumulative fatigue	15.14(± 3.90)	15.73(± 3.85)	1.22(.271)
Total sleep quality		35.08(±14.09)	36.93(±12.68)	1.05(.307)
	Daytime dysfunction	9.44(± 6.39)	10.11(± 6.26)	0.62(.430)
	Restoration after sleep	7.99(± 2.33)	8.32(± 2.39)	1.07(.301)
	Difficulty of falling asleep	4.64(± 3.21)	4.83(± 3.11)	0.19(.657)
	Difficulty of awakening	4.58(± 1.88)	4.82(± 1.97)	0.87(.352)
	Satisfaction of sleep	5.81(± 2.04)	6.11(± 1.88)	1.34(.249)
	Difficulty of maintain sleep	2.62(± 1.68)	2.74(± 1.58)	0.26(.608)
To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46.09(± 9.52)	47.52(±10.59)	1.11(.292)
	Relationships with superiors	10.60(± 3.33)	11.60(± 3.85)	4.24(.041)
	Relationships with subordinates	10.91(± 3.43)	11.74(± 3.91)	2.77(.097)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10.21(± 3.10)	10.47(± 3.31)	0.37(.546)
	Relationships with patients/guardians	14.37(± 3.22)	13.72(± 3.01)	2.39(.123)

\* CW=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 GW=General ward

Table 3. Correlation of Fatigue, Sleep Qual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N=220)

CW* (n=114)			GW* (n=106)		
r(p)	Sleep qu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r(p)	Sleep qu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Fatigue	.53(<.001)	.47(<.001)	Fatigue	.46(<.001)	.35(<.001)
Sleep quality		.38(<.001)	Sleep quality		.27(.006)

\* CW=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 GW=General ward

서 피로도가 총 75.76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피로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피로의 하위영역을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에서 고갈성 피로, 누적성 피로, 긴장성 피로 순으로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ang (2013)의 피로측정도구 개발 연구에서도 간호사 피로의 하위 영역을 점수를 조사한 결과, 고갈성 피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긴장성 피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고갈성 피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으로 적절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의욕의 상실,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 졸음, 집중하기 어려움, 일을 그만두고 싶음, 환자나 보호자, 동료, 타 부서 의료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측정하였다. 피로가 늘어나면 휴식과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며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주어 일상적인 생활기능이 저하되고 나른해지며 졸음을 느끼게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므로 작업능력이 감소된다(Kim & Cho, 2002). 이러한 피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이거나 심하여 만성피로나 과로에 빠지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환자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절, 투약 오류 등 환자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고갈성 피로를 중심으로 피로를 경감하기 위한 병원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비록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피로의 세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피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피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피로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Ahn 등(2018)의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비해 일반병동의 간호사들은 인력과 물질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Park 등(2018)의 연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이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근무환경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반병동 간호사는 인력배치와 관련되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1인당 환자

수가 더 적은 편으로, 일반병동의 인력이나 물질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일반병동 간호사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피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예측되어진다. 또한 잦은 밤근무 역시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밤번 근무일수가 8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19.8%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의 9.6%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빈번한 밤번 근무로 인한 피로감의 증가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을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35.08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36.93점으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병동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수면증진행위의 효과를 탐구한 Lee (2016)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수면의 질은 평균 42.00점, 대조군의 수면의 질 평균은 41.3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수면의 질이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의 질의 하위영역을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모두에서 수면 만족도, 수면 후 회복,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장애 영역에서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수면의 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군 모두에서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장애 영역에서 수면의 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와 고정근무 간호사군으로 나누어 수면의 질을 조사한 Kim (2016)의 연구에서 교대근무 간호사의 근무패턴을 낮번, 초번, 밤번으로 구분하여 수면의 질을 조사한 결과, 밤번 근무시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장애 영역에서 수면의 질 점수가 가장 낮았고, 낮번, 초번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Mun (2018)의 연구에서는 밤번 근무일수를 2일씩 월 3회 근무하는 집단과 3일씩 월 2회 밤번 근무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수면의 질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후자 집단의 수면의 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하면서, 밤번 근무의 지속일수가 짧은 집단의 간호사들이 느끼는 주관적 수면의 질이 더 좋음을 보고하였다. 이

량도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 장애가 특히 밤 근무, 밤 근무 연속일수 등과 연관이 있으므로, 밤 근무 일수나 연속일수의 조정 및 밤 전담근무제 도입 등의 전략을 통해 간호사들의 신체리듬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장애 영역에서 수면의 질이 가장 나쁘게 나타난 점은 간호사가 잠을 못자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짜증이 나고 졸립고 건망증이나 실수가 많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실제로 수면장애와 피로를 경험하는 간호사가 잘못된 임상적 판단이나 투약 오류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한 오류를 차단하지 못할 수 있어 간호의 질과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Jung & Kang, 2017), 이에 대한 병원 차원의 지속적인 체계적인 대책이나 지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가 11.90명,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18.06명으로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적을수록 간호사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게 되고,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면서 환자안전사고와 의료관련 감염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Park & Lee, 2017),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충분한 인력보충을 통해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46.09점, 일반병동 간호사는 47.52점으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병동 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상사(선배) 관계 스트레스 영역에서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보다 더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사(선배)관계 스트레스에서는 상사가 후배를 배려하는 행동이 적다고 느끼게 될 경우, 후배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되며 상사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Cooper

& Marshall, 1976). 간호계의 조직문화는 다소 위계적인 모습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나 직속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직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Kang, 2013). Cooper와 Marshall (1976)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불신은 업무의 모호성과 관련이 높으며, 이는 조직 내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Kim과 Yu (2018)의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보다 동료간호사와의 관계, 다른 부서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갈등 상황을 유의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었다. Kim과 Yu (2018)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환자 특성, 병상가동률, 중증도, 간호필요도, 진료과를 고려하여 인력 배치와 업무분담이 잘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갈등이 더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높은 역할갈등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중점적으로 간호인력 간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역할갈등을 감소하는 전략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결과, 상사(선배), 부하(후배), 동료관계 스트레스 세 영역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지만, 환자/보호자와의 관계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들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이 담당했던 일상생활 보조업무를 포함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Lee & Jung, 2015). 또한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에 익숙해진 보호자들의 불신과 간호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서비스의 요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감정 노동을 호소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Kim & Han, 20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나 보호자와의 관계로 인한 영역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들보다 더 높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보고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건강한 인성함양을 위한 교



육의 확대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훈련 및 기술의 습득,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의료조직 문화 풍토의 개선 등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병원 차원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피로, 수면의 질,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및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 모두에서 피로와 수면의 질은 양적인 상관관계, 피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양적인 상관관계, 수면의 질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모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된 간호사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피로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어(Kwak, 2009),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간호사는 보호자 및 동료, 타 의료인들과의 자주 접촉하는 직업으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 상태에 따른 정신적 피로를 많이 경험하므로(Park, Yang, Kim, & Cho, 2007), 이에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조직에서는 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서비스 제공인력을 배치하여 총체적인 전문간호와 환자관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계속 확대해갈 방침이다. 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건강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확대되는데 있어 간호정책적 측면에서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피로, 수면의 질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선배)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 영역에서만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 간호사들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병동 간호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성비

스병동의 간호사들보다 피로도가 더 높았고, 수면의 질은 더 나빴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모두에서 고갈성 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기능장애 영역에서 수면의 질이 가장 나빴던 점, 환자/보호자 관계 스트레스 영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피로 관리 프로그램이나 수면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전략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 병원으로 한정되어있고,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재확인하여 개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300명상 이상 500명상 미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표본수를 확대하거나 병원규모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해 병원 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간호정책적인 측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요인에 대한 중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Ahn, S. H., Jung, S. H., You, J. H., & Lee, M. A. (2018). Nursing tasks and practice environment for nursing work perceived by nurses working on comprehensive wards versus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10-20.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10>

- Cooper, C. L., & Marshall, J. (1976). Occupational sources of str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il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1), 11-28.  
<https://doi.org/10.1111/j.2044-8325.1976.tb00325.x>
- Gil, H. H., & Choi, J. S. (2012). Affecting factors of hospital caregivers on the level of practice, knowledge, and importance of work under no guardia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1), 55-65.  
<https://doi.org/10.5807/kjohn.2012.21.1.55>
- Im, J. A. (2015).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Job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Incheon.
- Jang, E. H. (2013). *Development of fatigue scale for n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Jang, E. H., & Shim, M. S. (2018).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emergency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2), 249-262.  
<http://doi.org/10.5932/JKPHN.2018.32.2.249>
- Jung, Y. A., & Sung, K. M. (2018). A comparison of patients' nursing service satisfaction, hospital commitment and revisit intention between general care unit and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30-39.  
<https://doi.org/10.1111/jkana.2018.24.1.30>
- Jung, Y. J., & Kang, S. W. (2017). Differences in sleep, fatigue, and neurocognitive function between shift nurses and non-shift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9(2), 190-199.  
<https://doi.org/10.7475/kjan.2017.29.2.190>
- Kang, S. J. (2013).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relation-oriented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72-381.  
<http://doi.org/10.1111/jkana.2013.19.3.372>
- Kim, B. H., & Kang, H. Y. (2018).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459-469.  
<https://doi.org/10.5762/KAIS.2018.19.5.459>
- Kim, J., Kim, S., Park, E., Jeong, S., & Lee, E. (2017). Policy issues and new direction for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3), 312-322.  
<https://doi.org/10.1111/jkana.2017.23.3.312>
- Kim, M. H. (2016). *A study on the fatigue, sleep quality, and menstrual patterns of nurses according to their work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M. Y. (2013). *Relationships of nurses' stress from interpersonal relation to self-efficac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 Kim, S. E., & Han J. Y. (2017). Clinical nurses' job stress, emotional labor, nursing performance, and burnout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s*, 23(3), 336-345.  
<https://doi.org/10.1111/jkana.2017.23.3.336>

- Kim, S. Y., Kim, W. D., & Lee, S. M. (2017). The relation of communication types of nurses, satisfaction on nursing services and intent to revisit the hospital perceived by patients admitted to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1), 321-331.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321>
- Kim, T. J., & Yu, J. O. (2018). Comparative study of clinical nurses' role conflict, emotional labor and nursing performance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5(1), 12-20.  
<https://doi.org/10.5953/JMJH.2018.25.1.12>
- Kim, Y. H., & Cho, S. H. (2002). A study on the fatigue of hospital nurses in Gwangju and Jeonnam reg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2), 271-284.
- Kwak, E. J. (2009). *Relationship between sleep disorder, fatigue and job satisfaction in shifti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E., & Chang, S. S. (2016).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nurses amo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4), 340-351.  
<http://dx.doi.org/10.5807/kjohn.2016.25.4.340>
- Lee, M. K., & Jung, D. Y. (2015). A study of nursing tasks,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hospitals with no guardi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3), 287-296.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3.287>
- Lee, S. Y. (2016). *The effect of sleep enhancement behaviors in shift-work nurses on their sleep quality, fatigue and depression lev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October).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s that operat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Retrieved October 30, 2018, from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1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402&page=1](http://www.mohw.go.kr/react/gm/sgm06011s.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402&page=1)
- Mun, G. M. (2018). *Sleep disturbance, daytime sleepiness, fatigue and near-miss of three-shift work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 Park, I. S., Kim, J. H., Hong, H. J., Kim, H. S., Han, I. S., & Lee, S. Y. (2018). Comparing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nursing care nursing work environment, nurse's intention to work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unit and general nursing care unit.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4(1), 34-43.  
<https://doi.org/10.22650/JKCN.2018.24.1.34>
- Park, J. H., & Lee, M. H. (2017). Effects of nursing and care-giving integrated service on nursing work performance, nurses' job satisfaction and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24(1), 14-22.  
<http://dx.doi.org/10.22705/jkashcn.2017.24.1.014>
- Park, Y. N., Yang, H. K., Kim, H. L., & Cho, Y. C. (2007). Relationship between shift work, and sleep problems and fatigue symptoms of nurses for general hospital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6(1), 37-47.
- Shin, Y., Lee, S., Moon, H., Jung, D., & Lee, H. (2018). Effects of Satir's model based communication education on communication

-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happiness of regional public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1), 122-134.  
<http://dx.doi.org/10.5932/JKPHN.2018.32.1.122>
- Yi, H., Shin, K., & Shin, C. (2006). Development of the sleep quality scale. *Journal of Sleep Research*, 15(3), 309-316.  
<https://doi.org/10.1111/j.1365-2869.2006.00544.x>
- Yoon, H. S., Lim, J. Y., & Kang, M. J. (2017). Comparison of expectation-perception between patient and nurse on nursing care service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3), 507-522.  
<https://doi.org/10.5392/JKCA.2017.17.03.507>
- Yun, J. Y., Ham, O. K., Cho, I. S., & Lim, J. Y. (2012). Effect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mental health status of shift and non-shift nurses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68-279.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68>

## Comparison of Nurses's Fatigue, Sleep Qu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Choi, Ju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Kweon, Yoor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fatigue, sleep qu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levels between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s and in general ward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4 August to 17 September 2018. The participants were 220 nurses from 6 hospitals in Seoul and Gyeo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3.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2$ -test, Fisher's exact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subjects' fatigue, sleep qu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s wards and the general wards. The interpersonal stress with a superior was statistically higher among general wards tha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s wards. The relationship stress between patient and caregiver was higher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s wards than in general wards. **Conclusion:**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develop a strategic method to reduce interpersonal stress in nurses.

**Key words :**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Nurses, Fatigue, Sleep, Psychological stress